

## Convergence Service & Market Report

# 최초 LiMo Platform R2 상용화, ‘Vodafone 360’ 은 과연 LiMo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RELEASE DATE : 2009. 10. 08

ROA Group Korea, Consulting Team  
(Business\_kr@researchonasia.com)

본 보고서는 ROA Group이 운영하는 'Mobile Industry Online Database Service' (db.researchonasia.com)에 Update된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Current Topics: 삼성전자가 만든 LiMo 단말, Vodafone 360]

지난 2009년 9월 24일, 삼성전자와 Vodafone은 두 개의 새로운 휴대폰 기종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처럼 매달 새로운 Smart Phone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기에서 새로울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제품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

[Figure 1 - 삼성전자가 출시한 LiMo 기종, Vodafone 360 H1, M1]



Source: Vodafone.com

우선은 이들 제품은 처음으로 상용화 수준의 LiMo Platform을 탑재했다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제품이 Vodafone 360이라는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에 최적화되었다는 점에 있다.

본 보고서는 우선 두 개의 휴대폰 모델이 가지는 의미와, 이를 통해 본 LiMo Platform의 가능성과 JIL Widget 그리고 Vodafone 360 서비스해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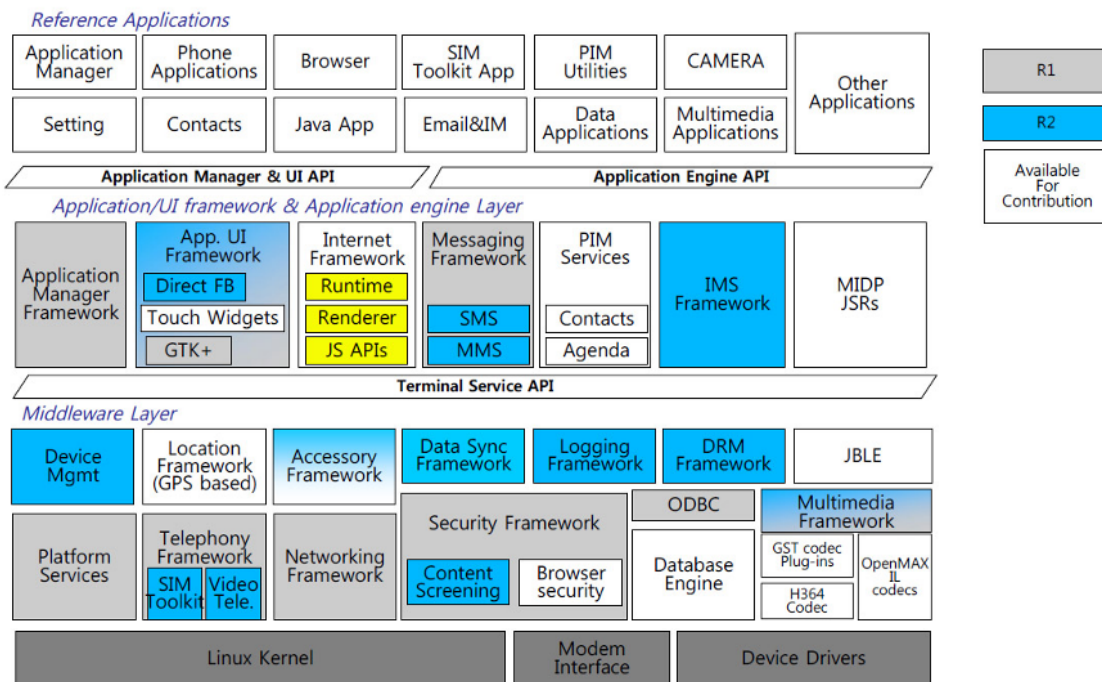
[Comment on Current Topics: Vodafone 360의 의미와 세부 서비스 리뷰]

1) LiMo R2의 최초 상용화

사실 LiMo는 이미 R1이라는 첫 번째 버전을 지난해 발표했고, 이를 탑재한 기종이 전세계에 30종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R1의 초기 출시 제품이 대부분 Motorola 제품이거나 또는 일본에서 출시된 제품이기도 했지만 R1 자체의 기능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R1의 실패를 거울삼아 R2는 상당히 다양한 미들웨어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그림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R1만으로는 제대로 된 휴대폰 기능을 제공하기란 어려움이 있었다.

[Figure 2 - LiMo R2의 아키텍처]



Source: 커뮤니케이션 비전 2008, 삼성전자 발표

이번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두 모델이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LiMo R2의 최초 상용화 모델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2) H1과 M1가 모두 ARM Cortex A8 600MHz를 사용한 이유

삼성전자가 발표한 두 기종에서 고급 기종인 H1의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

Network	: 2G GSM 850 / 900 / 1800 / 1900, 3G HSDPA 2100 <b>WLAN Wi-Fi 802.11 b/g</b> , Bluetooth v2.0 with A2DP
Weight	: <b>134 g</b>
Display	: Type AMOLED, 16M colors, Size 800 x 480 pixels, <b>3.5 inches</b>
Int Memory	: <b>Internal 16 GB</b>
Ext Memory	: Card slot microSD (TransFlash) up to 16GB
Camera	: 5 MP, <b>autofocus, LED flash</b> , Video recording
CPU	: ARM Cortex A8 600 MHz, PowerVR SGX graphics
GPS	: A-GPS support
Java	: MIDP 2.0

아래는 다른 하나인 중급 기종에 해당되는 M1의 주요 사양이다.

Network	: 2G GSM 850 / 900 / 1800 / 1900, 3G HSDPA 2100 <b>WLAN No</b> , Bluetooth v2.0 with A2DP
Weight	: <b>111 g</b>
Display	: Type AMOLED, 16M colors, Size 800 x 480 pixels, <b>3.2 inches</b>
Int Memory	: <b>Internal 1 GB</b>
Ext Memory	: Card slot microSD (TransFlash) up to 16GB
Camera	: <b>3.15 MP, No autofocus, No LED flash</b> , Video recording
CPU	: ARM Cortex A8 600 MHz, PowerVR SGX graphics
GPS	: A-GPS support
Java	: MIDP 2.0

중요한 것은 반응 속도의 핵심을 담당하는 Application Processor의 Core가 모두 ARM Cortex A8 600MHz와 PowerVR SGX 내장이라는 점이다. 이것들은 경쟁사인 Apple과 Palm의 iPhone 3GS와 Palm Pre에도 거의 유사한 성능으로 내장되어 있다.

최근까지 알려진 LiMo의 가장 큰 약점 중의 하나는 GTK+ 기반의 2D 그래픽 엔진이다. PC에서 고성능의 GPU에서 동작하던 것들을 휴대폰에 탑재했으니 그 성능이 제대로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최고 성능의 AP를 사용한다면 아마도 반응 속도로는 충분이 보상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러나, 반대로 LiMo R2가 이런 성능의 AP에서만 동작한다면 중저가의 Feature Phone에도 LiMo를 사용하려고 생각했던 통신사업자들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된다. 아마도 H1와 M1이 가격대가 다른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AP를 사용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추정된다.

### 3)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JIL Widget으로

9월 현재 Vodafone은 개발자들에게 Widget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총액 100만 유로의 Widget 콘테스트인 Vodafone APP STAR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도 발표했다. Vodafone 360 지원 단말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경진대회로, 이미 JIL<sup>1</sup> Widget은 삼성전자와 Vodafone의 LiMo 단말뿐 아니라 China Mobile의 Customized Android Platform인 OMS의 Widget Platform으로도 채택된 바 있다. 즉, 기존 Web 개발자들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내려올 것 없이 JIL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Resource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Figure 3 - Vodafone APP STAR 경진대회]

The image shows a promotional banner for the Vodafone APP STAR Competition. On the left, there is a video player with a play button and the text 'Play again', 'vodafone', 'APP STAR COMPETITION', and the URL 'www.jil.org/vodafone/appstar'. The video player shows a red star icon on a mobile device screen. On the right, there is a large red button that says 'ENTER NOW!'. Above the button, the text reads 'DESIGN & BUILD YOUR MOBILE WIDGET FOR A CHANCE TO WIN A SHARE OF €1,000,000 CASH TOP PRIZE €100,000'. At the bottom right, there is a section titled 'Featured Entries:' with a small note below it: 'No entries submitted until Submit Your Widget'.

Source: Vodafone.com

<sup>1</sup> JIL(Joint Innovation Lab) is a joint venture between Vodafone, Verizon Wireless, China Mobile and Softbank Mob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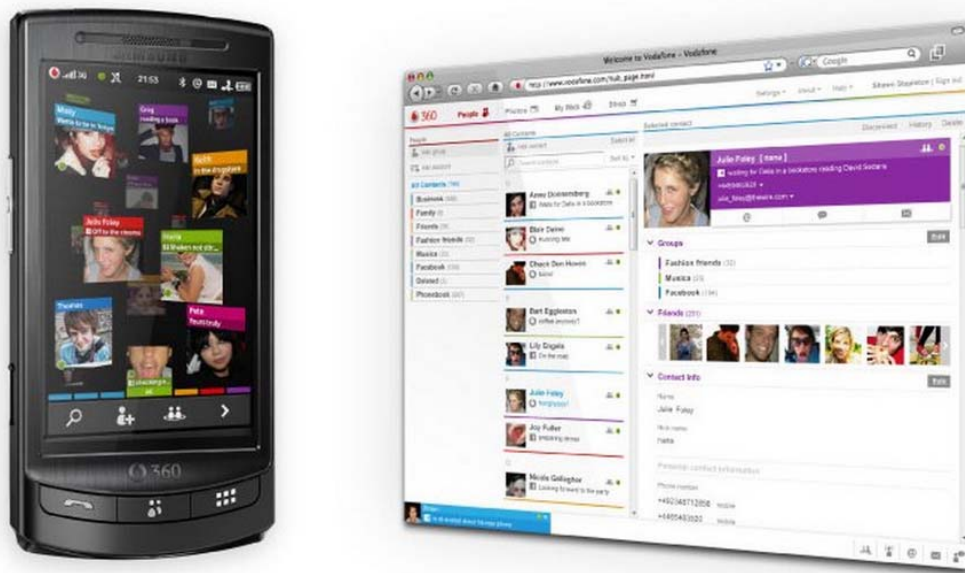
LiMo R2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JIL Widget 사양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JIL은 Vodafone, China Mobile, Softbank, Verizon이 만든 조인트 벤처로서 그 목적은 4개의 통신사가 같이 사용할 단말 Platform에 대한 사양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 첫 결과가 JIL Widget 사양이다.

하지만, JIL Widget의 목표대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JIL Widget만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iPhone 2G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똑같은 주장을 스티브 잡스가 했었지만 결국 Native SDK를 공개했고, Google의 Android도 처음에는 Java 기반의 API만을 제공하다가 NDK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Palm이 WebOS를 출시하면서 완전히 JavaScript만으로 Palm Pre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시키겠다고 개발도구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성공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 4) Vodafone 360은 LiMo와 무관한 Vodafone의 서비스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않아야 할 것이 Vodafone 360이라는 브랜드이다. Vodafone 360이란 우선 단말기의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서비스 브랜드이다. 이는 SKT가 T를 서비스 브랜드로 사용하면서 자사에 공급되는 단말기에도 붙이는 것과 비슷하지만 다르다.

[Figure 4 - Connected Address book]



**Bring all your contacts together in a single connected address book**

Your phone, email, chat and social network contacts in a single easy-to-access address book, always available on your phone, PC and Mac.

Source: Vodafone 360.com

Vodafone 360의 서비스는 크게 5가지로 Connected Address book, Music, Photo, Map, Shop, My Web이라는 구성되어 있다.

[Figure 4]의 Connected Address Book은 기존에 Vodafone이 인수한 ZYB.COM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소록의 Backup과 Sync는 기본이고 Facebook, Twitter등과 같은 SNS와의 연동도 제공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Motorola의 Android 기반의 휴대폰인 MOTOCLIQ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Figure 5 - Map 서비스]



**Get where you're going with Maps**

Never get lost again with detailed maps, turn-by-turn instructions and voice guidance.

Source: Vodafone 360.com

[Figure 5]의 Map 서비스는 Google의 Map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Vodafone이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당연히 네비게이션 기능과 친구와 위치 공유 등 최신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Figure 6]의 Photo 서비스는 휴대폰에서 찍은 사진을 자동적으로 Vodafone 360 Web에 업로드 해주고 다시 Web에서 편집할 수 있게 해준다. iPhone의 MobileMe에 있는 것과 비슷하나 자동적인 Backup은 더욱 발전된 형태이다.

[Figure 6 - Photo 서비스]



**Take and tag photos wherever you are**

Take a photo on your Vodafone 360 H1 or M1 by Samsung phone and it's automatically uploaded to your private library, tagged with the date, time and location.

Source: Vodafone 360.com

[Figure 7]의 Shop은 음악과 어플리케이션, 게임, 링톤을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App의 경우 Java 게임이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ure 7 - Shop 서비스]



**Buy Games and Apps**

Shop is a one-stop store for all the latest content for your phone. Browse, discover and download the latest Apps, Games, Music and Videos. Create a unique profile and get personalised content recommendations, check other user ratings and leave reviews of what you buy.

Source: Vodafone 360.com

[Figure 8 - Music 서비스]



**Get music wherever you are**

The music shop is your complete mobile music solution. Browse, sample, buy individual tracks and albums and download direct to your phone. Or subscribe to our unlimited music service and play as much new music as you want, no matter where you are, from our catalogue of more than one million songs.

Source: Vodafone 360.com

[Figure 8]의 Music 서비스는 iTunes와 형태가 유사하지만 가입자 모델로 Unlimited service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Figure 9 - My Web 서비스]



**Personalise your web**

My Web is your web homepage personalised to look how you want and feature all the content you love. Create links with your favourite websites, add gadgets and synchronise automatically between your phone, PC and Mac to give you access wherever you are.

Source: Vodafone 360.com

[Figure 9]의 My Web 서비스는 개인화 Web 서비스로 우리나라에서도 Wzd.com이 서비스하던 형태와 유사한 내용이다.

[Commentary: LiMo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Vodafone 360의 중요성]

사실 Vodafone 360 서비스는 단말 Platform과는 종속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발표에 의하면, 이번 삼성전자의 LiMo 기종 이외에도 Nokia S60 기종에 사전 탑재될 예정이며 기존 Nokia와 Sony Ericsson 기종에서도 다운로드 된다고 한다. 이것은 아마도 Vodafone 360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Java로 제공될 것을 의미한다.

[Figure 10 – Vodafone 360에 표시된 Nokia와 Sony Ericsson 지원 단말 리스트]

The screenshot shows the Vodafone 360 website's 'Phones' section. It features a navigation bar with 'Experience', 'Features', and 'Phones' tabs. A sidebar on the left lists 'Vodafone 360 H1', 'Vodafone 360 M1', 'Other phones', and 'All supported phones'.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All supported phones' and includes text explaining service compatibility and a list of supported devices under 'NOKIA' and 'Sony Ericsson' categories.

**All supported phones**

Vodafone 360 services will work on a number of popular mobile phones.

We'll be selling phones with our Vodafone 360 services already preloaded. Soon, you can enjoy Vodafone People, Apps, Shop, Maps and Music on phone models you know and love.

You can even download the services to your current mobile phone for free, as long as it's compatible.

As a start, try Vodafone People with its rich connected address book and status feeds. You don't need to be a Vodafone customer to use the service and we support more than 100 phones.

Here's a full list of phones currently supported by Vodafone 360

NOKIA	Sony Ericsson
Nokia 2700 Classic	Sony Ericsson C510
Nokia 3120 Classic	Sony Ericsson C702
Nokia 3600 Slide	Sony Ericsson C902
Nokia 5130 XpressMusic	Sony Ericsson C905
Nokia 5230 XpressMusic	Sony Ericsson C903

Source: Vodafone 360.com

하지만, Vodafone 360 H1과 M1은 단순히 삼성전자가 만든 휴대폰이 아니다. Vodafone 360의 서비스가 가장 잘 제공되기 위해서 Vodafone이 직접 설계한 휴대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두 기종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규격부터 모든 소프트웨어의 규격과 시나리오는 Vodafone이 설계했다고 한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ODM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Vodafone 입장에서라도 자신들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독자적인 OS인 LiMo를 성공시키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Platform에 Vodafone 360 서비스를 탑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LiMo 단말기의 실패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출시된 삼성전자의 LiMo 단말기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LiMo Platform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의 킬러 서비스인 Vodafone 360 서비스의 성공은 더욱 더 Vodafone과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셈이다.

© Copyright ROA Group. All Rights Reserved. Additional reproduction is strictly prohibited without a written permission from ROA Group. For receiving written permission, please write to [business@researchonasia.com](mailto:business@researchonasia.com). The opinions and estimates presented in this report are based on information sources that are believed to be reliable and accurate. The contents of this report reflect the current opinions and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For more information on ROA white papers and reports, go to [www.roagroup.co.kr](http://www.roagroup.co.kr)*

### **About ROA Group**

ROA Group is a research and consulting company, specialized in mobile and convergence markets in Asia. ROA Group head office is located in Tokyo, and branch offices are located in Seoul and Shanghai. ROA Group's main clients are mobile carriers, handset manufacturers, government agencies and global IT companies.

### **ROA Group Consultants and Analysts who are contributing this analysis report**

David Kim, Country Manager, Chief Consultant (Korea)

Andrew Hong, VP, Partner (Korea)

Jeong Ho Yoon, Senior Consultant (Korea)

John Goh, Senior Consultant (Korea)

Lim, Ha Ni, Consultant (Korea)

Sung Hyun Park, Analyst (Korea)

Steve Lee, Country Manager, Chief Consultant (Japan)

Kuninori So, Chief Consultant (Japan)

Sonia Woo, Senior Consultant (Japan)

Sung Ho, Kim, Analyst (Japan)

Yamamoto Hiroshi, Analyst (Japan)

Kimura Noriko, Analyst (Japan)

Lee Hwami, Analyst (Japan)

Yeunsil Lee, Analyst (Japan)

Kyoung-Hee Jung, Analyst (Japan)

Oh, Sun Dong, Senior Consultant (China & Taiwan)

*For a complete list of ROA Group analysts, go to [www.roagroup.co.kr](http://www.roagroup.co.kr)*

**Through Our Specialized Research & Consulting On Asia,  
Maximize your Return On Asset**